

청소년의 심리적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의 차이: 내외통제성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중심으로*

정 미 나 엄 정 혜 성 벼 리 양 은 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진로장벽 지각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진로장벽의 지각이 개인이 경험에 대해 접근하는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외통제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부족이라는 심리적 요인들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 유형간 진로장벽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전체 648명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군집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적통제성, 외적통제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하위집단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안정 내부귀인형, 불안정 외부귀인형, 불안정 고관여형, 안정 저관여형으로 명명되었다. 안정과 불안정의 차원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기반하였다. 내부귀인형은 높은 내적통제성과 낮은 외적통제성을 특징으로 하며, 외부귀인형은 낮은 내적통제성과 높은 외적통제성을 반영하였다. 고관여형은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 모두 평균이상인 집단이었으며, 저관여형은 둘 모두 평균이하인 집단이었다. 이러한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로장벽 유형에 관계없이 안정 내부귀인형이 가장 진로장벽을 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불안정 고관여형과 불안정 외부귀인형이 가장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차원이 내외통제성과 함께 청소년의 진로장벽 지각에 중요한 개인차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진로장벽, 내외통제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 본 연구는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양은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E-mail : yange@korea.ac.kr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할 주요 발달 과업 중 하나는 자신의 흥미, 능력 등에 대해 개발 및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여 결정하는 일이다 (Blustein, Ellis, & Devenis, 1989). 중·고등학교 시기를 포함한 청소년기(15~25세)는 탐색기에 해당하며 학교생활, 여가 등을 통해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고 진로를 탐색, 선택,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Super, 1990). 진로는 단순한 직업의 선택을 넘어서 자신이 살아가면서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일련의 체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생의 큰 방향 설정으로 이어져 삶의 질과 의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2008년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최근 한 달(조사기간 중) 동안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진로(39.4%)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학업 및 학교 부적응(23%) 등이었다. 이처럼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해 나가는 것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이지만 이를 실제로 수행해 나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꿈은 희망직업의 50% 이상이 전체 1만2천여 개의 직업 가운데 17개로 집중되어 있고, 진로 탐색과 진로 관련 정보인식의 수준이 미흡한 채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식, 이현철, 2007). 이미 전공을 결정한 상태인 대학생들 역시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17.6%에 불과하였다(박동열, 김대영, 2006).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치중되어 진로지도 대신 대학 입학을 위한 진학지도에 편중되고, 진학지도 역시 학생의 적성이나 능력을 무시한 채 성적에 맞는 대학에 합격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연령에 적합한 진로 이행을 발달시켜 나가는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김현주, 김준영, 2010).

이와 같은 진로결정의 어려움들을 학문적으로 정의한 것이 '진로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 장벽이란 개인의 진로 탐색 활동을 어렵게 하고 지연시키는 내적 혹은 환경적 사건 및 조건들을 일컫는다(Swanson & Woitke, 1997). 선행연구들은 진로장벽의 요인들로 자기이해의 부족, 진로관련정보의 부족, 자신감 결여와 같은 내적 요인들과 재정적 지원의 부족, 중요한 타인들의 반대와 같은 외적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김은영, 2001; Creed, Patton, & Bartrum, 2004; McWhirter, Torres, & Rasheed, 1998; Russell & Rush, 1987; Swanson & Tokar, 1991; Tak & Lee, 2003).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김진숙, 이종희, 2003; 손은령, 2001; O'Leary, 1974; McWhirter, 1997), 최근에는 탈북여성(전연숙, 강혜영, 2009; 전연숙, 강혜영, 2010), 성적 소수자(Parnell, Lease, & Green, 2010), 혹은 장애 대학생(김원호, 김동일, 2011; 최용용, 윤현희, 이정애, 2009; Punch, Creed, & Hyde, 2006)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로 그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진로결정을 바로 앞둔 대학생이나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서도 진로장벽이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Gottfredson의 진로발달이론(1981)에 근거하여 진로장벽이 발달초기부터 자아개념의 발달과 함께 지각되면서 청소년들의 진로결과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 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지각된 진로장벽이 다양한 진로발달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각된 진로장벽이 클

수록 진로성숙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박미경 & 이현림, 2008; 이상희, 2006; 이상희, 2007), 특히 성취동기와 직업가치와 같은 다른 요인보다도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덕 등, 2010). 진로장벽의 지각은 진로포부의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Flores, O'Brien, 2002, Kenny, Blustein, Chaves et al, 2003),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김영경, 2008; 이정금, 2009; Creed, Patton, & Bartrum, 2004).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진로장벽이 높게 지각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중, 2005; 박정희, 김홍석, 2009). 또한 진로장벽을 덜 지각할수록 좀 더 통합된 진로정체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Gushue, Clarke, Pantzer, & Scanlan, 2006). Lipshits- Braziler와 Tata(2011)는 최근의 연구에서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회피나 부정과 같은 비효율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진로장벽 자체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애요인일 수 있으나, 개인이 진로장벽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객관적 장벽보다도 진로발달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이성식, 정철영, 2007). 개인의 진로장벽의 지각은 심리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로장벽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자아존중감, 자아 효능감, 귀인성향, 통제소재, 특성불안과 같은 심리내적변인과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변인들 그리고 성차, 인종, 차이 등에 주목해왔다. 진로장벽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요인들로는 특성불안(김은영, 2001; 이성

식, 정철영, 2007; 손은령, 손진희, 2005), 귀인성향(손은령, 2006), 인지양식(Creed, Patton, & Bartrum, 2004), 자아존중감(유성경 등, 2007), 자아효능감(Swanson, Daniels, & Tokar, 1996)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사회환경적 요인들로는 부모와의 애착(김경하, 2010; 유성경 등, 2007), 사회적 지지(박미경 등, 2008; 송보라, 황정은, 이기학, 2008; Wall & MacIntyre, 1999), 성별 혹은 성역할 정체감(천성문, 전은주, 2009; Luzzo & McWhirter, 2001; Luzzo, 1995; McWhirter, 1997; Swanson & Wotke, 1997) 등이 보고되었다.

특히 심리내적 요인들 중 개인이 자신의 경험에 접근하는 양상은 진로장벽의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으로 내외통제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고려하였다. 내외통제성이 개인의 경험에 대한 통제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반영한다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경험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선호를 나타낸다. 이 두 요인은 진로결정의 어려움과 관련된 성격·정서적 모형(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에서 각기 비판적인 관점과 불안에 관련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ati, Gadassi, Saka et al., 2011; Saka & Gati, 2007; Saka Gati, & Kelly, 2008).

통제감은 Davis(1967)가 처음 연구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관련한 개인의 지각체계를 말한다. Rotter(1969)는 이를 구체화하여 다양한 상황에 걸쳐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통제감의 성향을 내외통제성이라 명명하였고, 행동에 따른 결과의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으로 구

분된다고 하였다. 즉, 개인마다 성공 및 실패의 원인을 내부 혹은 외부로 귀인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세상에 적응하고 성장해 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결국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내외통제성은 이후 학습, 정신건강,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적응 등 다양한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하유진, 2007).

내외통제성은 진로발달전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로발달에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내적 통제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수준 역시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김현진, 2003; 육영숙, 이강우, 2005; Bernardelli, DeStefano, & Dumont, 1983; Rodriguez & Blocher, 198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고(정은이, 2008), Lease & Dahlbeck (2009)의 경우 남학생에게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외적 통제성은 증가할수록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낮추고(Brown, 2000), 진로결정과업완수에 대한 자신감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 Popma, 1990). 내외통제성을 기준으로 내적통제집단과 외적통제집단을 비교한 경우, 내적통제집단은 외적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장벽을 덜 지각하고(손은령, 2002; 손은령, 200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으며, 더 많은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은령, 손진희, 2005).

진로장벽의 지각에 있어서 내외통제성이 중요한 개인차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나, 공존하는 다른 요인의 맥락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내적 통제성이 높은 경우 자신의 경험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므로 진로장벽을

적게 지각할 수 있으나, 실제 경험 중에는 자신이 통제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수용하고 견디는 능력은 이미 변할 수 없는 과거와 미리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악순환으로부터 현재 개인의 경험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Hayes, Jacobson, Follette & Dougher, 1994). 진로발달과정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적 경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Bright & Pryor, 2005; 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불확실하고 모호한 경험에 대해 수용하고 견디는 능력은 내외통제성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경향성으로 정의된다(Dugas, Buhr, & Ladouceur, 2004). 불확실성에 대해서 인내력이 낮은 사람들은 상황이 애매모호함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불확실성은 부정적인 것이며 피해야 할 것이라고 믿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잘 기능하지 못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주로 걱정의 발생과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Dugas, Freeston, & Ladouceur, 1997; Dugas, Gagnon, Ladouceur, & Freeston, 1998; Freeston, Rhéaume, Letarte, Dugas, & Ladouceur, 1994). 이들 연구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걱정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Lachance, Ladouceur, & Dugas, 1999; Laugesen, Dugas, & Bukowski, 2003; Robichaud, Dugas, & Conway, 2003). 불확실성에 대해 인내력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더 불확실한 정보를 회상하고, 애매모호한 정보를 더욱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Dugas et al., 2005), 실제로 문제해결기술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나 지각된 통제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Dugas et al., 199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최근에 들어서야 진로분야에서 연구되기 시작되었다.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 대한 인내력의 부족은 불안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의 한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Gati, Gadassi, Saka et al., 2011; Saka & Gati, 2007; Saka Gati, & Kelly, 2008). 실제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버텨내는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의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남들이 뒤처지는 것을 피하려는 근시안적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나 결정수준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경옥, 2009). 최근의 진로상담이론들 역시 우연이나 불확실성이 진로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손은령, 2009; 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진로장벽의 지각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이론들의 주장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내외통제성과 함께 진로장벽의 지각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성격적 요인임을 시사하는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이들 요인과 진로장벽 지각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내적 통제성, 외적 통제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각각의 영향력에 초

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진로발달에서 실제 경험되는 사건들과 이에 기초하여 지각되는 진로장벽들이 통제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각의 성격적 차원의 영향력보다는 이 차원들의 조합이 보다 중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이들 차원의 통합적인 양상을 파악하고자 유형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유형의 파악은 진로상담에 있어서 차별적인 진단(differential diagnosis)과 차별적인 처치(differential treatment)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봉환,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적 통제성, 외적 통제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세 심리적 차원에 대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하위집단을 확인하고, 이들 하위집단에 따라 진로장벽의 지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비교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의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8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서울시 8개 학교에서 모집되었으며, 각 학교당 1학년 두 학급과 2학년 두 학급을 선정하여 수업시간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 혹은 중복응답이 포함된 설문지를 모두 제외한 64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대상 중 남자는 297명이고 여자는 351명 이었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2학년이 25%, 3학년이 22%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이 27%, 2학년이 26%였다.

연구도구

내외통제성

Nowicki & Strickland(1973)의 40문항으로 구성된 아동용 통제성 척도 CN-SIE(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와 Wellborn, Conell과 Skinner(1989)의 학생용 통제력 지각 질문지(SPCQ: The Student Perception Of Control)를 바탕으로 민하영(1999)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내부에 두는지, 외부에 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업이나 지적 행동에 대한 신념과 미신에 대한 일반적인 지각, 부모와 친구와 관련된 행동과 강화 간의 일관성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을 측정하는 문항이 각 10문항씩이고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내적통제성은 .72, 외적통제성은 .73 이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척도는 Freeston, Rheaume, Letarte, Dugas 및 Landoucheur(1994)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검사로 최혜경(1997) 연구에서 사용된 것이다. 이 검사는 모호한 상황에 대한 인지·정서·행동적 반응 및 불확실함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통제 시도 등을 측정하는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자는 각 문항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 정도를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들은 모두 역채점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Cronbach's α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2005)의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척도와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2005)의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척도를 이용하였다. 두 척도는 모두 청소년의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자기 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하위요인의 문항을 제외한 다른 문항들은 두 척도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항만을 포함하기 위하여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요인을 제외하고 6가지 요인, 총 3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는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별로 각 문항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점수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아 하위요인간의 비교가 어려운 관계로, 각 하위요인별로 총점을 문항의 개수로 나눠 평균을 구한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자기이해의 부족 .88, 자신감 부족 .86,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79,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71, 직업 및 진로정보의 부족 .81, 경제적 어려움 .8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변인들에 대한 기초통계로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이후 내적통제성과 외적 통제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따라 어떠한 하위집단을 구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은 공통적인 특성들을 기초로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발생적이고 동질적인 하위집단으로 묶이는지를 보여준다(Hair & Black, 2000). 군집분석에 의해 확인된 하위집단에 따라 각각의 진로장벽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결 과

내외통제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진로장벽의 관계

본 분석에 앞서 먼저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내적통제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나 유의미하지 않았고, 외적통제성과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r=-.47, p<.01$). 또한 진로장벽(전체) 및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과는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2.) 내적통제성은 외적통제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r=-.24, p<.01$), 진로장벽(전체) 및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과는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였다. 반대로 외적통제성은 진로장벽(전체) 및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유의미하게 나타냈으며, 진로장벽(전체)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상관

표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내적통제성, 외적통제성, 진로장벽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									
2	.043	-								
3	-.47**	-.24**	-							
4	-.52**	-.25**	.50**	-						
5	-.36**	-.20**	.32**	.78**	-					
6	-.51**	-.25**	.46**	.90**	.68**	-				
7	-.37**	-.17**	.44**	.76**	.44**	.57**	-			
8	-.38**	-.15**	.34**	.78**	.56**	.65**	.55**	-		
9	-.33**	-.20**	.31**	.76**	.65**	.60**	.47**	.53**	-	
10	-.37**	-.16**	.40**	.67**	.37**	.48**	.50**	.41**	.42**	-
M	69.71	30.22	21.83	73.64	2.41	2.21	1.90	2.36	2.30	1.94
SD	12.41	3.85	4.28	17.19	.76	.57	.61	.69	.68	.66

주. 1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2 = 내적통제성, 3 = 외적통제성, 4 = 진로장벽(전체), 5 = 자기이해의 부족, 6 = 자신감 부족, 7 =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8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9 =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10 = 경제적 어려움

* $p<.05$, ** $p<.01$

분석 결과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내적통제성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고, 외적통제성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내외통제성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따른 하위 유형 분석

내외통제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따른 하위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Hair와 Black (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방법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위계적 군집분석방법만을 사용할 때 이탈 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내적통제성, 외적통제성 3가지 변인들의 표준점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군집분석(Wards method, Squared Euclidean distances)을 실시하고 군집화일정표(Agglomeration) 계수와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4개의 군집 해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집 수를 정한 후, 처음 생성된 군집들의 평균점수를 초기중심점으로 투입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사례들의 소속군집을 제시

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군집1은 170명(전체의 26%), 군집2는 90명(전체의 14%), 군집3은 153명(전체의 24%), 군집4는 235명(전체의 36%)으로 구성되었다. 군집별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내적통제성, 외적통제성이 조합된 형태를 검토하고 군집특성을 반영하여 군집명을 명명하였다. 군집1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내적통제성은 평균보다 높으나, 외적통제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 ‘안정 내부귀인형’으로 명명하였고, 군집2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내적통제성은 평균보다 낮으나, 외적통제성이 높게 나타나 ‘불안정 외부귀인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3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낮고,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이 높게 나타나 ‘불안정 고관여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4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높고,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은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안정 저관여형’으로 명명하였다. 안정 내부귀인형 집단(군집1), 불안정 외부귀인형 집단(군집2), 불안정 고관여형 집단(군집3), 안정 저관여형 집단(군집4)은 군집변인들 간의 점수에서 대조적인 프로파일을 보였다(그림 1).

표 2. 최종 군집별 중심점

(N=648)

	안정 내부귀인형	불안정 외부귀인형	불안정 고관여형	안정 저관여형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56.22	43.78	40.74	53.91
내적통제성	58.93	35.89	54.57	45.97
외적통제성	40.07	57.48	58.62	48.70
군집크기	170	90	153	235

주.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M = 50$, $SD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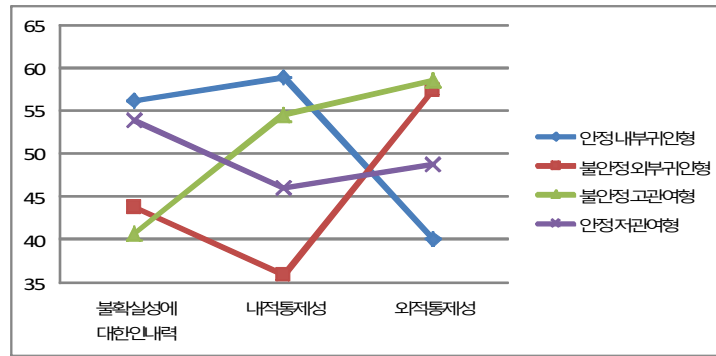


그림 1. 군집 프로파일

하위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의 차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내적통제성, 외적통제성의 차원으로 조합된 각 군집들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MANOVA를 실시하였다. 네 군집

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6개를 종속변인으로 두었다. Box의 동일성 검정 결과 집단의 공분산 행렬의 동질성 가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왜도와 첨도 검토 시 문제가 없었고 Pillai's Trace는 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이나 다변량 정상을 가정할 수 없을 때에

표 3. 군집별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

	안정 내부귀인형 (N=170)	불안정 외부귀인형 (N=90)	불안정 고관여형 (N=153)	안정 저관여형 (N=235)	F(3,644)
	M(SD)	M(SD)	M(SD)	M(SD)	
Pillai's $T=.29$, $F(18, 1923)=11.42$, $p < .01$, partial $\eta^2=.10$					
자기 이해의 부족	2.00(.76) ^c	2.68(.77) ^a	2.69(.71) ^a	2.41(.64) ^b	31.802**
자신감 부족	1.82(.54) ^c	2.53(.56) ^a	2.52(.55) ^a	2.18(.40) ^b	68.109**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56(.53) ^c	2.17(.62) ^a	2.15(.67) ^a	1.87(.50) ^b	37.052**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1.98(.76) ^c	2.62(.64) ^a	2.63(.61) ^a	2.35(.57) ^b	33.304**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1.96(.71) ^c	2.58(.66) ^a	2.48(.67) ^{ab}	2.32(.57) ^b	25.252**
경제적 어려움	1.59(.54) ^c	2.28(.70) ^a	2.21(.68) ^a	1.89(.58) ^b	38.193**

주. 사후검정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여 부등호로 제시하였으며($p<.05$), 같은 알파벳 기호는 동질적인 집단을 나타냄. 1 = 안정 내부귀인형 집단, 2 = 불안정 외부귀인형 집단, 3 = 불안정 고관여형 집단, 4 = 안정 저관여형 집단.

* $p<.05$, ** $p<.01$

도 합리적인 준거가 될 수 있으므로(Olson, 1979) 이를 해석의 준거로 삼았다.

MANOVA 분석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의 선형조합은 네 하위유형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8,1923)=11.42$, $p < .01$, partial $\eta^2=.10$). 각 하위유형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진로장벽 지각에 있어서 안정 내부귀인형이 가장 낮았고, 안정 저관여형이 두 번째로 나타났으며, 불안정 외부귀인형과 불안정 고관여형은 동질적인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에서 불안정 고관여형은 안정 저관여형과도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외통제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차원과 진로장벽 지각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외통제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기초한 군집유형을 도출하고 이들 군집간 진로장벽 지각에 어떠한 차이를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통제성, 외적 통제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기초하여 하위유형을 탐색한 결과 네 유형이 관찰되었다. 각각의 유형은 안정 내부귀인형, 불안정 외부귀인형, 불안정 고관여형, 안정 저관여형으로 명명되었다. 첫 번째 안정 내부귀인형은 모호한 상황을 잘 견디면서 동시에 내적 통제감이 높은 유형이다. 이 유형은 내외통제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전반적인 상관관계를 가장 잘 반영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통제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Dugas et al., 1997; Dugas, Hedayati, Karavidas, Buhr, Francis, & Phillips, 200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적 통제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모두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으므로(김경옥, 2009, 김현진, 2003; 손은령, 2002; 손은령, 2006; 손은령 & 손진희, 2005; 육영숙, 이강우, 2005; Bernardelli, DeStefano, & Dumont, 1983; Rodriguez & Blocher, 1988; Taylor & Popma, 1990), 이 유형은 진로발달에서 가장 적응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불안정 외부귀인형은 첫 번째 유형과 세 가지 차원에서 모두 반대 방향에 위치한 유형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내적통제성은 평균보다 낮으나, 외적통제성이 높게 나타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사건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동시에 모호한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진로탐색 및 결정과정에서 문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등 가장 부적응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유형인 불안정 고관여형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낮고,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이 모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즉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내부이든, 외부이든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며, 동시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으므로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 걱정이나 불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결정에 있어서 이들은 모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빨리 결정을 내리고자 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안정 저관여형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내적 통제성, 외적 통제성이 모두 평균 수준의 범위에 머무르는 집단이다. 이들의 귀인양식은 안

정적이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나 비 일관적일 수 있으며 불확실한 상황에도 어느 정도 잘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유형은 진로탐색 및 결정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적응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하위유형에 따라 진로장벽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진로장벽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앞서 유형의 특성에 따라 예상한 바와 같이 안정 내부귀인형과 안정 저관여형은 불안정 외부귀인형과 불안정 고관여형에 비해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였다. 안정 내부귀인형과 안정 저관여형은 통제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모두 높은 유형이다. 이는 모호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 수용해 내는 태도가 진로발달 과정에서 경험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 보다 더 잘 대처하게 하고 이를 장벽으로 지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진로결정수준을 높인다는 김경욱(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안정 내부귀인형과 안정 저관여형을 비교하였을 때, 안정 내부귀인형이 안정 저관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 내부귀인형의 경우 경험에 대한 내적 통제성이 높은 반면, 저관여형은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이 분화되지 않은 귀인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안정 귀인형이 안정 저관여형보다 진로장벽을 더 적게 지각하였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을 때 내적 통제감이 큰 것이 통제감이 분화되지 않은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지된 바와 같이 내적 통제성은 보다 주도적으로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로결정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의 지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김현진, 2003; 손은령, 2002; 손은령, 2006; 손은령 & 손진희, 2005; 육영숙, 이강우, 2005; Bernardelli, DeStefano, & Dumont, 1983; Rodriguez & Blocher, 1988; Taylor & Popma, 1990). 반면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이 분화되지 않은 것은 상황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보다 현실적으로 원인을 이해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통제감이 높을 때보다는 보다 많은 진로장벽을 지각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불안정 외부귀인형과 불안정 고관여형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모두 진로장벽을 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내외통제성향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내적 통제성이 높은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으면서 동시에 내적인 통제감이 낮고 외적 통제감을 크게 지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 것이라는 점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김경욱, 2009, 김현진, 2003; 손은령, 2002; 손은령, 2006; 손은령 & 손진희, 2005; 육영숙, 이강우, 2005; Bernardelli, DeStefano, & Dumont, 1983; Rodriguez & Blocher, 1988; Taylor & Popma, 1990). 보다 흥미로운 점은 모호한 상황에 대해 심리적 불편감을 크게 지각하는 경우 내적 통제감이 높다 하더라도 진로장벽을 크게 지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진로발달의 과정이 본질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우연한 사건들을 포

함하기에(Bright & Pryor, 2005; 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내적으로 귀인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적인 대처를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상담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상담에서 성격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지지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상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인지적, 정보적 접근이 주를 이룬다.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제공이 물론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나, 이러한 정보가 보다 잘 통합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서·성격적 특성도 중요하다. 특히 통제감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진로장벽과 관련되므로, 청소년들의 진로상담에서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이러한 성격적 특성에 의해 과대지각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역시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촉진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내적 통제감이 높더라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경우에는 더 많은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모호하거나 예측 못한 상황에 대해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고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통제감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장벽을 지각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자는 진로장벽에 대한 문제해결적 접근에서 벗어나 모호하고 예측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감 혹은 불안과 같은 정서를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진로발달과정의 비선형성과 불확실성을 거부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우연적 기회를 통해 보다 만족스러운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탐색행동을 촉진해야 한다(Krumboltz, 2011).

향후 연구에서 고려될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인문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서울 지역과 인문계 학교가 가지는 제한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의 준거로서 지각된 진로장벽 수준만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진로장벽의 지각이 진로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나,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의 어려움 혹은 문제를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하므로, 진로발달의 보다 긍정적 지표들(예를 들어 진로결정효능감이나 진로성숙도 등)을 지표로서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세 번째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수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보다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을수록 모호한 상황에 더 잘 대처하는 긍정적인 특성으로 보았으나,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불안이 지니는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의들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극단적으로 높다는 것은 적응적이지 않은 특성이 될 수 있다. 진로발달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견디는 수준이 높다는 것이 진로 탐색 및 결정시기를 유예하고 방관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추후 이루

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원덕, 안귀여루 (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61-175.
- 김경식, 이현철 (2007). 진로결정 수준 변화의 영향 요인. 중등교육연구, 55(3), 143-164.
- 김경옥 (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 김경하 (2010). 대학생의 부모 애착,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 관계 모형의 남녀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경 (2008).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 김원호, 김동일 (2011). 장애 대학생용 진로장벽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장애와 고용, 21(2), 5-25.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 이중희 (2003).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학장벽. 상담학연구, 4(4), 773-788.
- 김현주, 김준영 (2010). 청소년의 진로 이행과 청소년, 부모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2(2), 23-52.
- 김현진 (2003). 자기효능감과 내외통제성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 (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동열, 김대영 (2006). 대학생의 직업의식에 관한 실태. 직업교육연구, 25(2), 1-32.
- 박미경, 이현림 (2008).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5), 239-259.
- 박정희, 김홍석 (2009).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1), 125-144.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상담학연구, 2(2), 251-262.
- 손은령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15-427.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손은령 (2006). 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진로행동. 상담학연구, 7(3), 803-819.
- 송보라, 황정은, 이기학 (2008). 여대생의 지각된 진로장벽, 자존감,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664-665.

-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37-851.
- 유성경, 이항심, 황매향, 홍세희 (2007). 학업우수 여학생의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및 진로장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8(3), 357-380.
- 육영숙, 이강우 (2005). 중·고교 운동선수들의 자아개념과 내외통제신념이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4(1), 191-200.
- 이상희 (2006). 대학생의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99-417.
- 이상희 (2007). 진로장애와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지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75-392.
- 이성식, 정철영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4), 83-109.
- 이정금(2009). 농업계열 고등학생의 진로장벽, 직업가치관이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2(1), 127-143.
- 전연숙, 강혜영 (2009). 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남한여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09-425.
- 전연숙, 강혜영 (2010). 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지각: 연령별, 학력별, 남한거주기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69-487.
- 천성문, 전은주 (2009).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수치심 및 진로장벽 간의 관계. *인문학논총*, 14(3), 219-238.
- 최숙현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웅용, 윤현희, 이정애 (2009). 장애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19(2), 5-28.
- 최혜경 (1997).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하유진 (2007).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20, 30대 성인남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2008년 청소년 삶과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2), 125-159.
-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6(4), 1205-1223.
- Bernardelli, A., de Stefano, J., & Dumont, F. (1983). Occupational information-seeking as a function of perception of locus of control and other personality variables. *Canadian Counsellor*, 17, 75-81.
- Bluestein, D. L., Ellis, M. V., & Devenis, L. E. (198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s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 Behavior*, 35, 342-378.
- Bright, J. E. H., & Pryor, R. G. L. (2005). The Chaos Theory of careers: A user's guid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3, 291-305.
- Brown, C., Clastetter-Fender, C., & Shelton, M. (2002). Psychosocial Identity and Career Control in College Student-Athle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1), 53-62.
- Creed, P. A., Patton, W., & Bartrum, D. (2004). Internal and external barriers, cognitive style, and the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of focus and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 277-294.
- Davis W. L. & Phares E. J. (1967). Internal-external control as a determinant of information-seeking in a social influence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35, 547-561.
- Dugas, M. J., Freeston, M. H., & Ladouceur, R. (1997).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problem orientation in wor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593-606.
- Dugas, M. J., Gagnon, F., Ladouceur, R., & Freeston, M. H. (1998).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 preliminary test of a conceptual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215-226.
- Dugas, M. J., Buhr, K., & Ladouceur, R. (2004). The rol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the etiology and maintenance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In: R. G. Heimberg, C. L. Turk and D. S. Mennin, Editor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Guilford Press, 143-63.
- Dugas, M. J., Hedayati, M., Karavidas, A., Buhr, K., Francis, K., & Phillips, N. A. (2005).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Evidence of biased recall and interpreta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 57-70.
- Farmer, H. S. (1976). What inhibits achievement and career motivation in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 12-15.
- Flores, L. Y. & O'Brien, K. M. (2002).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14-27.
- Freeston, M. H., Rheaume, J., Letarte, H., Dugas, M. J., & Ladouceur, R. (1994). Why do people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 791-802.
- Hair, J., & Black, W.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nold(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47-205.
- Gati, I., Gadassi, R., Saka, N., Hadadi, Y., Ansenberg, B., Friedman, R., & Asulin-Peretz, L. (2011).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Facets of career indecisiven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 3-20.
- Gottfredson, G. D.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97.
- Gushue, G. V., Clarke, C. P., Pantzer, Karen, M., & Scanlan, K. R. L. (2006). Self-Efficacy, Perceptions of Barriers, Vocational Identity, and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Latino/a High School Students. *Career*

- Development Quarterly*, 54(4), 307-317.
- Hayes, S. C., Jacobson, N. S., Follette, V. M., & Dougher, M. J. (1994). *Acceptance and change: Content and context in psychotherapy*. Reno: Context Press.
- Kenny, M. E., Blustein, D. L., Chaves, A. Grossman, J. M., & Gallagher, L. A. (2003). The role of perceived barriers and relational support in the educational and vocational lives of urb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42-155.
- Krumboltz, J. D. (2011).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 251-258.
- Lachance, S., Ladouceur, R., & Dugas, M. J. (1999). Éléments d'explication de la tendance à s'inquiéter [Elements explaining the tendency to worry.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8, 187-196.
- Laugesen, N., Dugas, M. J., & Bukowski, W. M. (2003). Understanding adolescent worry: the application of a cognitive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55-64.
- Lease, S. H., & Dahlbeck, D. T. (2009). Parental Influences, career decision-making attributions, and self-efficacy differences for men and wome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6(2), 95-113.
- Lent, R. W., Brown, S. D., &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 Suthakaran,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74-483.
- Lipshits-Braziler, Y., & Tata, M.,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oping among youth in Israel: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In Press, corrected, Proof.
- Luzzo, D. A.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319-322.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 239-248.
- Luzzo, D. A., & Jenkins, S. A. (1996).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24, 1-8.
- Luzzo, D. A. (1997). Correlations of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Luzzo, D. A., & McWhirter, E. H. (2001). Gender and ethnic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educational/career-related barriers and levels of coping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 61-67.
- McWhirter (199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24-140.
- McWhirter, E. H., Torres, D., & Rasheed, S. (1998). Assessing barriers to women's career adjust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6, 449-479.
- Mitchell, K. E., Levin, A. S.,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 115-124.
- Nowicki, S., & Strickland, B. R. (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148-154.
- O'Leary, V. E. (1974). Some attitudinal barriers to occupational aspirations in women. *Psychological Bulletin*, 81, 809-826.
- Olson, C. L. (1979). Practical considerations in choosing a MANOVA test statistic: A rejoinder to Stevens. *Psychological Bulletin*, 86, 1350-1352.
- Parnell, M. K., Lease, S. H., & Green, M. L. (2010). Perceived Career Barriers for Gay, Lesbian, and Bisexual Individual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Advance online publication. doi: 10.1177/0894845310386730
- Punch, R., Creed, P. A., & Hyde, M. B. (2006).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hard-of-hearing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practice from a mixed-methods study.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1, 224-237.
- Robichaud, M., Dugas, M. J., & Conway, M. (2003). Gender differences in worry and associated cognitive-behavioral variabl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7, 501 - 516.
- Rodriguez, M., & Blocher, D. (1988). A comparison of two approaches to enhancing career maturity in Puerto 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275.
- Rotter, J. B. (1969).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 Applied*, 80, 1-28.
- Russell, J. E. A., & Rush, M. C. (1987). A comparative study of age-related variation in women's views of a career in manag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280-294.
- Saka, N., & Gati, I. (2007).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persistent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340-358.
- Saka, N., Gati, I.,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403-424.
- Super, D. E. (1990). A life 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Swanson, J. L., & Tokar, D. M. (1991).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 Swanson J. L. & Woi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preta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43-462.
- Tak, J.,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328-345.
- Taylor, K. M. & Popma, J. (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17-31.
- Wall J., Covell K., MacIntyre P. D. (1999). Implications of social supports for adolescents' education and career aspiration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1, 63-71.
- Wellborn, J. G., Connell, J. P., & Skinner, E. A. (1989). *The Student Perceptions of Control Questionnaire*.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원 고 접 수 일 : 2011. 10. 07.

수정원고접수일 : 2011. 12. 16.

최종게재결정일 : 2011. 12. 20.

The Differences Between Psychological Types Based on Locus of Control and Tolerance of Uncertainty in the Perceived Career Barriers

Mina Jung

Junghye Uhm

Byeori Sung

Eunjoo Yang

Korean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is study investigated psychological types based on the locus of control and the tolerance of uncertainty that might lead to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career barriers of the Korean adolescents. A total of 648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completed a questionnair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cluster analysis and MANOVA. Cluster analysis with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the 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the tolerance of uncertainty yielded four types: Internal control group with security, external control group with insecurity, high engagement group with insecurity, and low engagement group with insecurity. Security and insecurity represented the high and low levels of the tolerance of uncertainty. Internal control indicated a high level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a low level of external locus of control. External control was labeled for the condition with a high level of 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a low level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High engagement reflected high levels of both internal and external loci of control, and low engagement was indicated by low levels of both internal and external loci of control. MANOVA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four groups in the perceived career barriers. The result showed that internal control group with security perceived the lowest level of career barriers across all types of career barriers. On the other hand, both high engagement group with insecurity and low engagement group with insecurity reported the greatest level of career barrier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tolerance of uncertainty, along with the locus of control, may serve as an important factor for perceived career barriers.

Key words : Career Barriers, Locus of Control, Tolerance of Uncertainty